

성인 남성 4명 태우고도 연비 잘 나오네...최고다! 셀토스

‘국내 소형 SUV 1위’ 기아 ‘더 뉴 셀토스’ 타보니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터보엔진 탑재 최고출력 198마력 차급 뛰어넘는 성능에 안전·편의사양...세련된 디자인까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완장을 굳건히 지켜오는 기아의 셀토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에 차급을 뛰어넘는 성능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한 게 특징이다.



‘더 뉴 셀토스’ 내부

셀토스는 체급에 비해 넓은 실내공간과 세련된 디자인, 준수한 주행성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국내 소형 SUV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아의 시그니처 모델로 꼽힌다.

최근 기아가 3년 만에 내놓은 첫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셀토스’를 시승했다. 시승 구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까지 왕복 56km 상당으로, 시승 차량은 최상위 트림인 시드니처 그레비티 가솔린 1.6(2WD DCT) 모델이다. 외장 색상은 다크 오션 블루, 내장은 블랙 색상이다.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 더 뉴 셀토스의 외관과 내장 인테리어를 두루 살펴봤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이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스타램 시그니처 라이팅과 LED 프로젝션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이전 셀토스 모델에 비해 차체가 한층 넓어 보였다.

특히 후면부는 이전 모델이 각지고 탄탄해 보였던 것과 달리 유연한 곡선 디자인으로 보다 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 더해졌다. 여기에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이 입혀지면서 고급스러움도 한층 더해졌다.

트렁크 공간도 만족스러웠다. 골프백을 비롯한 대형 짐을 넣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실내 역시 소형 SUV 답지 않은 공간감을 자랑했다. 실제 더 뉴 셀

토스는 전장 4390mm, 전폭 1800mm, 전고 1600mm, 축거 2630mm 등 준중형 SUV와 비견될 정도다.

운전석에 앉아 실내를 찬찬히 둘러봤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단연 돋보였다. 공조 버튼과 인포테인먼트 버튼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조작계를 다루기 쉬웠다. 소형 SUV에서 보지 못했던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시동을 걸고 주행에 나섰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까지 국도를 이용해 달렸다. 평소 준중형 SUV를 이용하는 탓에 소형 SUV의 주행성능은 기대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예상이 빗나갔다. 차량에 운전까지 포함해 성인 남성 4명이 타고 있었지만, 더 뉴 셀토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차체를 부드럽게 나아가면서 무리 없이 속도를 높였다. 이전 모델에 비해 확실한 주행성능이 향상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더 뉴 셀토스는 기본적으로 준중형급에 탑재되는



최근 기아의 ‘더 뉴 셀토스’ 시드니처그레비티 가솔린 1.6 모델을 타고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까지 왕복 56km가량을 시승했다. <기아 제공>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198마력(PS), 최대토크 27.0kgf·m를 발휘한다.

또 8단 자동변속기가 새로 장착되면서 정속성과 변속 응답성도 보다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었다. 고속주행 시 소형 SUV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면 소음과 진동도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됐다.

1시간 남짓 비교적 짧은 주행을 했지만 연비도 꽤 괜찮았다. 이날 56km 주행 연비는 12.2km/ℓ 로,

더 뉴 셀토스의 평균 복합연비 12.8km/ℓ 에는 살짝 못 미쳤으나 성인 남성 4명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이밖에 동급 최초로 적용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의 도움으로 운전 내내 편리함을 느꼈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도 적절히 사용했다.

시승을 마쳐갈 때쯤 “이번 차 잘 나왔네”라는 생 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연비와 주행성능, 안전·

편의기능을 비롯해 가격까지 가성비로는 국내에서 따라올 차가 없을 것 같았다.

한편 더 뉴 셀토스 판매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 트랜디가 2160만원으로 시작해 프레스티지가 2459만원, 시그니처 2651만원, 그레비티 2685만원이다. 2.0가솔린 모델은 트랜디 2062만원, 프레스티지 2361만원, 시그니처 2552만원, 그레비티 2587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산 친환경차 수출액 ‘역대 최대’

1~7월 87억6천만달러...전년 동기비 41.1%는 30만6000대 수출 기아 EV6 3만5344대·현대 아이오닉5 3만5045대...지난달 5만 돌파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수출액과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의 올해 1~7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총 30만59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6771대)보다 41.1% 늘었다.

7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5만4164대로 지난해 동월(3만3874대) 대비 59.9% 증가했다. 친환경차 월수출량이 5만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이 처음이다.

지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선적 지연된 물량이 이월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KAMA는 설명했다. 1~7월 친환경차 수출량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13만9912대, 13만1837대를 기록해 지난해 동월 대비 21.7%, 49.3% 늘었다.

르노코리아차는 3만6153대를 수출해 165.8% 증가했고, 쌍용차는 129대를 수출했다. 쌍용차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이 한 대도 없었다.

한국GM의 올해 7개월간 친환경차 수출 실적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11만6600대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7만4518대)보다 56.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하이브리드는 16만421대로 33.8%,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2만8714대로 33.3% 각각 늘었다. 수소전기차 수출량은 174대에 그쳐 78.7% 감소했다.

모델별로 보면 전기차는 기아 EV6 3만5344대, 현대 아이오닉5 3만5045대, 기아 니로EV 1만 3973대 순으로 수출량이 많았다.

하이브리드는 르노 XM3 HEV 3만5910대, 현대 코나 HEV 1만9645대, 기아 니로(SG2) HEV 1만 6176대 순이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기아 니로 PHEV가 6204대, 기아 쏘렌토 PHEV가 6192대였다. 수소전기차는 현대 넥소(174대)가 유일했다.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87억6000만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 규모였다.

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8.6%를 차지했다.

지난달 연료별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기·수소차 7억3000만 달러, 하이브리드 6억7000만 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68.4%, 60.9%, 40.0%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 수출액의 경우 각각 3개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는 르노 XM3 HEV 3만5910대, 현대 코나 HEV 1만9645대, 기아 니로(SG2) HEV 1만 6176대 순이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기아 니로 PHEV가 6204대, 기아 쏘렌토 PHEV가 6192대였다. 수소전기차는 현대 넥소(174대)가 유일했다.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87억6000만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 규모였다.

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8.6%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는 르노 XM3 HEV 3만5910대, 현대 코나 HEV 1만9645대, 기아 니로(SG2) HEV 1만 6176대 순이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기아 니로 PHEV가 6204대, 기아 쏘렌토 PHEV가 6192대였다. 수소전기차는 현대 넥소(174대)가 유일했다.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87억6000만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 규모였다.

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8.6%를 차지했다.

지난달 연료별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기·수소차 7억3000만 달러, 하이브리드 6억7000만 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68.4%, 60.9%, 40.0%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 수출액의 경우 각각 3개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는 르노 XM3 HEV 3만5910대, 현대 코나 HEV 1만9645대, 기아 니로(SG2) HEV 1만 6176대 순이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기아 니로 PHEV가 6204대, 기아 쏘렌토 PHEV가 6192대였다. 수소전기차는 현대 넥소(174대)가 유일했다.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87억6000만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 규모였다.

7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8.6%를 차지했다.

지난달 연료별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기·수소차 7억3000만 달러, 하이브리드 6억7000만 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68.4%, 60.9%, 40.0%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 수출액의 경우 각각 3개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는 르노 XM3 HEV 3만5910대, 현대 코나 HEV 1만9645대, 기아 니로(SG2) HEV 1만 6176대 순이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기아 니로 PHEV가 6204대, 기아 쏘렌토 PHEV가 6192대였다. 수소전기차는 현대 넥소(174대)가 유일했다.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기·친환경 미션 수행 이벤트

현대차, 내달 15일까지 온·오프라인 ‘롱기스트런’ 실시

현대차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 ‘롱기스트런 2022’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롱기스트런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사회공헌 행사로 누적 참가자 23만명을 넘어 현대차의 대표 친환경 캠페인이다.

‘롱기스트런 2022’은 ▲언택트런(Untact Run) ▲파이널런(Final Run) ▲미니런(Mini Run)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 2년과 달리 대면 행사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한층 확대된 건강 증진 기회와 여가 선용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언택트런은 행사 기간 동안 롱기스트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달리기와 친환경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다.

언택트런은 ▲아이오닉 6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524km)를 상징하는 누적 5.24km를 달리는 ‘아이오닉 6 런’ ▲평일 오전에 1km 이상을 달리는 ‘얼리버드 런’ (Earlybird Run) ▲친환경 활동 사진 촬영 후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인증샷’ 등 9개의 미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각 미션을 수행하며 예코 마일리지 획득해 전용 애플리케이션 내 ‘에코 마일리지 샵’에서 경품을 응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경품은 보스(BOSE) 음향 제품, 가민(GARMIN) 스마트 워치 등의 전자제품과 에코백, 차량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가죽을 활용해 만든 마우스 패드 등 친환경 용품이다.

파이널런은 ‘롱기스트런 2022’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10월15일에 여의도 일대를 달리는 10km 마라톤 대회다. 파이널런은 언택트런의 미션 중 ‘아이오닉 6 런’을 달성하거나 이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를 통해 1만원을 기부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파이널런에는 2022 FIFA 월드컵 공식 파트너사인 현대차가 탄소 중립 월드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세기의 골’ (Goal of the Century) 캠페인의 국내 홍보대사인 박지성 전북현대 클럽 어드바이저가 참여한다.

현대차는 파이널런 참가자들에게 육수수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티셔츠를 제공하며 참가비 전액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롱기스트런 2022’ 개최를 기념해 런 투게더(Run Together)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용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 시 추천인 닉네임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신규회원권과 추천회원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총 2000매를 증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KG쌍용모빌리티’

KG그룹, 쌍용차 사명 변경

KG그룹이 쌍용차의 사명을 ‘KG쌍용모빌리티’로 변경한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다음 달 1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객잔전 KG그룹 회장의 KG쌍용모빌리티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업계 관계자는 “KG가 쌍용차의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며 “현재로서는 KG쌍용모빌리티가 새로운 사명으로 유력하다”고 전했다.

추후 내부 협의를 통해 다른 사명으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G그룹은 회장 취임식 때 KG쌍용모빌리티로 출범하지만, 당장 쌍용차의 로고나 엠블럼 등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로고 등의 교체에 일반적으로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고 교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6일 인수자인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을 토대로 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연합뉴스

‘침수 중고차’ 유통 주의보

손보협회 “침수차 1만1988대 달해...구매 전 ‘카히스토리’ 조회를”

폭우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의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988대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 (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침수로 인한 고장은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이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할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예보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삼삼 침수 지역에 대한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피하나 차량 실내 및 트렁크에 실린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만큼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